

## 두산인문극장 2026: 신분류학 New Taxonomy

### 놀이의 죽음: 첨단기술 시대의 노동과 놀이 손화철

2026년 6월 15일 저녁 7:30~9:30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 주요 논의 내용

- 놀이의 특별함
- 놀이의 자리
- 노동의 자리
- 노동에 반영되어야 할 놀이의 정신

놀이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아(J. Huizinga)의 통찰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하고 로봇이 춤을 추고 재주를 넘는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끼는 가운데, 동물과 사람이 '논다'는 사실이 주는 묘한 위로가 있다. 놀이에는 뜻이 있고, 이는 뭔가 비물질적인 성질이 있다는 의미이다. 놀이에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미'다. 놀이는 넘쳐흐르는 무엇이고,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가능성을 거부한다. 놀이는 결정론이나 논리적 정합성을 뛰어넘는 초논리적인 특징을 가진다. 그러면서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나 상상과 허구에서 현실로의 복귀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절도가 있다.

1938년에 나온 하위징아의 책 『호모 루덴스』에서는 이미 놀이가 사라지는 상황을 우려한다. 놀이에서 비롯된 여러 문화적 현상에서 놀이의 요소가 탈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한 세기가 지나 자본주의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고 당시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첨단기술이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한 오늘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첫째, 놀이와 여가를 동일시하지만 엄연히 그 둘은 다르다. 여가는 시간이고 놀이는 활동이다. 둘째, 이제 놀이의 도구는 상품이고, 많은 경우 소비와 연결된다. 셋째, 놀이가 상품이 되면 누군가의 노동과 연결된다. 소비재로서의 놀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놀이가 소비재로 변하고 어느 순간 노동이 되어버리는 작금의 상황을 '놀이의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질을 노동으로 규정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을 변형시키고 자기를 형성해 간다. 자본주의는 노동을 단순히 재화 획득의 수단으로만 보기 때문에,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는 임금으로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는 자신의 생산물로부터, 동료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노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생존을 위한 노동이 완전히 대체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더욱 선명하게 한다. 하위징아의 말대로 인류의 문명이 놀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다시 놀이를 관찰하고 고민하는 것이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한 새로운 실마리가 된다.

“문명이 놀이로서 생기며 놀이를 떠나는 법이 없다”면 놀이의 어떤 측면이 진정한 노동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노동이나 학습을 놀이처럼 만든다는 ‘게이미피케이션’ 개념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을 오래된 경쟁의 문법,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언어로 풀어내는 분위기도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놀이의 특징이란 무엇일까? 놀이하는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경쟁하고 승패에 따라 웃고 운다. 그 결과는 놀이가 끝난 후 공동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놀이의 목표나 방식은 비합리적일지라도 놀이 안에는 늘 규율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독재도 비합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도래는 인류가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기존의 개념과 질서에 균열을 예고한다. 따라서 기존의 개념 분류를 다시 시도하고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검토가 전혀 새로운 발상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과 놀이 개념의 본래 정의와 함의를 다시 관찰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불확정적인 결론에 마음을 열고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며 창의적인 미래를 기획하는 놀이의 정신으로, 억압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왜곡된 노동의 관성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

#### 손화철

한동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벨기에 루벤대학교에서 기술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최근 관심사는 포스트휴먼과 인공지능의 철학이다. 저서 『미래와 만날 준비』(2021), 『호모 파베르의 미래』(2020), 『과학과 가치』(공저, 2023), 역서 『불평할 의무』(2016) 등이 있다.